

Life History Research of a Librarian Who Has Transformed Her Life and Dreams through Reading

Bae, Cheol-woo¹⁾ (Sogang Reading Discussion Writing Institute)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reading is very useful to provide dreams to adults and to fulfill their dreams by looking at the life history of a librarian who achieved his dream through reading as a lifelong education. For this purpose, I collected the data through three narrative interviews in order to capture career path and career development of L - librarian who is a national library librarian and book reader an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professionalism.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collected qualitative data was carried out through a life - history approach. Although this study is a life history study of an individual,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ading as lifelong education, and secondly, I think that it can become a directioner to achieve.

Key Words: Lifelong education, life history research, librarian, reading

1) Corresponding Author: Bae, Cheol-woo, Sogang Reading Discussion Writing Institute, 140 Ilhyeon-ro, Ilsanseo-gu, Goyang-si, Gyeonggi-do, Korea, 10239 / E-mail: cwbae10@naver.com
Received: July 25, 2017 / Revised: September 05, 2017 / Accepted: September 15, 2017

독서를 통해 삶의 꿈과 전환을 이룬 사서의 생애사 연구

배철우¹⁾ (서강독서토론논술연구소)

< 요약 >

본 연구는 평생교육으로서의 독서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간 한 사서의 생애사를 살펴봄으로써 성인들에게 꿈을 제공하고 그 꿈을 이루게 하는데 독서가 매우 유용한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이자 독서교육자로 활동하는 L사서의 경력 경로와 경력 발달과정을 생애사적으로 포착하고, 전문성 개념의 파악을 위해 3차례에 걸친 내러티브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은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비록 한 개인의 생애사 연구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첫째로 평생교육으로서의 독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둘째로 삶의 꿈과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의 성인들에게 독서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향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평생교육, 생애사, 사서, 독서

1) 교신저자: 배철우, (10239)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40, 서강독서토론논술연구소 /
E-mail: cwbae10@naver.com
논문투고: 2017. 7. 25 / 심사일자: 2017. 9. 5 / 게재확정일자: 2017. 9. 15

I. 서론

인간이 갖는 특성 중 개방성은 인간은 열린 존재이며,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미완성, 미성숙한 상태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지만 무한한 성장가능성도 지니므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개방된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통해 원하는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꿈은 단지 유아나 어린이들에게만 요구되는 것만은 아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원하는 꿈을 다시 찾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 역량을 쌓아가는 것이다.

인공지능(AD),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 빅데이터, 딥러닝, 무인 자동차 등 현대 과학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가 탄생하고, 새로운 환경이 도래하므로 이에 걸맞은 역량 제고는 필요불가결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최근에는 학교, 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역량 중심의 융합인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경화(2017)는 미래의 핵심역량으로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이해, 진로개발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역량은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하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갖출 것을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독서라 할 수 있다. 독서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기초학습능력으로서의 역할과 다양한 배경지식을 형성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꿈을 찾도록 돕는 진로교육의 역할을 한다. 성인들에게도 지속적인 정보와 지식을 쌓아야 하고 전문영역에서의 역량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독서가 요구된다. 또한 인생의 전환기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서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더욱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핵심역량의 함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독서가 이와 같은 핵심 역량을 성장시키고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많다. 핵심 역량 중에서 주요 역량 몇 가지의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독서를 통한 창의성 역량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조가현(2016)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독서 지도 방법 연구’, 장승익(2004)의 ‘효율적인 독서 지도가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이유미(2008)의 ‘과정 중심의 독서 지도를 통한 창의성 신장 방안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옥샘(2008)의 ‘초등학생의 독서습관이 대인관계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정미(2012)의 ‘독서치료적 접근에 의한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김수연(2016)의 ‘독서토의 수업에서 질문 생성 전략이 아동의 읽기 동기와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전창미(2012)의 ‘독서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의 언어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정희(2013)의 ‘초등학교에서의 교과연계 독서가 학습부진아의 학업성취도와 학습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서(2017)의 ‘독서교육이 초등학생의 인성함양에 미치는 영향’, 이선화, 이경화(2017)의 ‘조손 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조부모 독서교육 모형 개발’ 이선화, 이경화(2015)의 ‘조손세대 간의 교류를 위한 조부모의 손자녀 독서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등 독서와 미래 핵심역량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성인과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실제적인 독서 교육 방법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독서교육 연구는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독서 자체의 즐거움과 효용에 대한 연구라기보다 독서 능력을 향상시켜 교과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는 특징이 있다(이삼형, 2011).

더욱이 독서와 꿈, 목표설정, 진로 등과의 관련성 연구로는 박정애(2015)의 ‘진로독서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황매향(2013)의 ‘독서를 활용한 진로교육의 가능성 탐색’, 한정아(2011)의 ‘진로독서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성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조민정(2010)의 ‘진로독서상담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직업가치관형성에 미치는 효과’, 이해용(2008)의 ‘학교도서관에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등 앞서 살펴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중, 고교생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관련 연구에 치우쳐져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록 한명의 개인에 대한 생애사 연구이지만 이를 통해 평생교육으로서 독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성인인 사서가 독서를 통해 원하는 꿈과 삶의 목적을 이루려는 전환학습으로서의 역할을 갖는 독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이호신(2012)의 ‘주제전문사서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법학전문사서를 중심으로’, 김병찬, 윤정(2015)의 ‘창의적으로 수업하는 교사’에 대한 생애사적 사례 연구’ 등이 있지만 성인대상 독서교육과 관련한 생애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첫째, 연구참여자의 사서로서 근무하기 이전과 이후의 생애경험은 어떠했는가? 둘째, 연구참여자의 삶에 있어 독서활동은 어떤 영향과 의미를 갖는가? 등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독서활동이 평생교육으로서의 중요한 학습방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전문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독서와 평생교육의 의미와 기능

가. 독서의 의미와 기능

좁은 의미에서의 독서는 말 그대로 ‘책을 읽는’ 행위이지만 넓은 의미의 독서는 ‘책을 포함한 문자로 이루어진 텍스트(text)를 읽고 이해하여 필요한 정보나 지식, 가치관을 자신의 기억창고에 저장시키고 나아가 필요할 때 인식된 내용을 적절히 꺼내어 쓸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독서는 독해와도 같은 맥락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텍스트를 읽고 반드시 이해하는 과정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 독서가 좁은 의미에서의 ‘책을 읽는 것’이라는 특정 대상과 읽는다는 행위만을 규정했다면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텍스트를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독서는 독해와 큰 차이점을 갖지 않으므로 독서는 곧 독해로 이해할 수 있다.

Irwin(2012)은 독서(독해)는 독자 자신의 사전 지식과 필자가 제시한 단서를 사용하여 어느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독자 개인에게 유용한 하나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개개의 문장에서 개별 낱말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선택적으로 정보를 회상하는 것, 절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 것, 요약된 정보를 통해 글의 정보를 조직하는 것, 그리고 필자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상호 간(독자, 텍스트, 저자)에 작용하고, 독자 자신의 목적에 맞춰 글을 읽는 독자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된다(초인지 과정). 그리고 독서(독해)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일어난다(상황맥락). 독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주의 깊게 선택할 때, 그 과정을 독서(독해) 전략이라고 부른다.

변우열(2015)은 독서는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글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주체적인 사고 과정이며 저작의 정신세계를 문자를 통해 파악하고 독자가 스스로 사고하고 체험하여 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창조하는 언어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서활동을 통해 독자는 저자의 인생관이나 세계관 등의 가치기준을 자신의 가치 척도와 비교하고 대조하여 새로운 경험과 가치 기준을 창조하고 형성해나가게 된다.

배철우(2014)는 독서는 국어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매우 비중이 큰 활동으로 중요한 정보를 대부분 글을 통해 얻기 때문에 우선 독해가 서투르면 공부하기 어렵고,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함이 따른다. 즉, 독서를 잘하면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으며,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데 유용한 것이 독서이다.

한국독서학회(2003)에서 제시하는 독서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독서는 정보제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독서는 학문을 하거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정보를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둘째, 독서는 능력 개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독서는 글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독서전략을 사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셋째, 독서는 바람직한 정서와 가치관의 함양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넷째, 독서는 사회적 유대감과 결속력의 강화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 집단의 구성원들은 책 또는 신문이나 사보나 교지를 읽음으로서 공동체의 독특한 문화와 익숙해지며, 경험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독서의 기능은 정보를 얻는데 큰 역할을 하며,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며, 바람직한 정서와 가치관 형성과 더불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유대감을 갖도록 돕는다. 더욱이 독서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는 재능과 역량의 발견, 진로탐색과 더불어 새로운 자신의 꿈을 찾도록 돕는 전환학습의 역할도 갖는다.

나. 평생교육의 의미와 기능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196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국제회의에서 Lengrand이 「평생교육이론」이라는 논문에서 최초로 사용하였다.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여러 견해들이 있다. Lengrand(1975)은 평생교육을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통합”으로 정의하였으며, Dave(1976)는 평생교육을 “개인적·사회적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 동안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비형식적 학습활동”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박경실 외(2010)은 평생교육의 특성을 융통성, 민주성, 학교교육의 보완성, 변화적응성, 자발성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추구한다고 정리하였다.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키워 달성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함으로써 행복한

삶과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 평생교육으로서의 독서가 갖는 의미와 역할

미(美)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경영자인 Warren Buffett이 ‘당신의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 줄 방법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기 바란다. 그러나 인류가 현재까지 발견한 방법 가운데서만 찾다면 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김병완, 2011).’ 라고 말한 것과 같이 독서는 개인의 인생을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은 평생교육이 갖는 목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것이다.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목적이라면 독서는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독서는 평생교육을 돕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독서교육이라는 독자적 영역의 교육이론을 갖는 분야이기도 하다. 영, 유아기부터 청소년 시기에는 독서교육을 통해 꿈을 찾고, 진로를 도우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올바른 인성을 갖도록 하며, 교과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기도 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독서는 자신이 맡은 직무를 이해하고, 관련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기도 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꿈을 찾기도 한다. 따라서 평생교육으로서 독서가 갖는 의미나 역할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배철우, 2016). 다만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교육 관련 연구들은 많지 않고, 성인 역량강화를 위한 독서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2. 생애사 연구의 의미와 기능

생애(生涯)는 살아 있는 한 평생의 기간을 뜻하지만 생애사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의미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찾는 것에 의미가 있다(김영천, 한광웅, 2012). 생애사(life history)는 개인이 경험한 역사인 동시에 개인의 경험 속에 녹아 있는 역사이다. 사회학자 Bourdieu는 개인으로서의 주체는 생애사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인 공간 안에서 만들어낸다고 하였다(박성희, 2003, 재인용). 즉 개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이런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성숙시킨다는 것이다. 생애사 연구의 주체인 사람은 개인의 삶을 통해 그 사회와 호흡하고 관계를 맺어 가는 관계의 주체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와 소통하며 다른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존재하기 때문에 인문, 사회 과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람을 연구해 왔는데 생애사 연구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최인혁, 2015).

생애사 연구는 ‘사적’인 동시에 ‘공적’인 연구방법이다. 개인의 과거에 대한 내용은 참여자 개인의 직접, 간접적인 경험에 대한 서술이라는 측면에서 ‘사적’이라고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개인의 생애사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역사적인 공간 속에서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이희영, 2005). 따라서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생애사를 통해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화, 역사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생애사 연구는 한 개인이 태어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로 성인, 대부분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한 개인이 어떻게 사회에 대처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개인의 경험과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윤택림, 2013).

교육학에서는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의 발달이라는 깊고 체계적인 분석과 다각적인 관점의 적용,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형숙, 문지원, 2012; 최인혁 2015). 박성희(2003)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애사를 만들 뿐 아니라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경험과 사건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 등의 원인을 무엇으로 귀속시키는가를 묻는 귀인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조명하고 현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그 의미 발견의 근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생애사 연구는 개인과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최근에는 여러 조직과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반성과 성찰하며 기술하는 질적 연구들이 각종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 형태이다(김영천, 이동성, 2011).

생애사는 한 개인의 경험에 대한 역사로서 그 개인의 관점, 삶의 상황, 세계에 대한 개인의 이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자서전, 전기, 일기, 편지 등과 같은 일반적 범주로서의 개인에 관한 기록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애사 연구는 연구자의 개입에 의해 얻어진 연구 대상자의 자기반성적인 사례를 기초로 연구 대상과 연구자 사이에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개인에 관한 기록과 구별된다. 생애사 연구가 연구대상자와 연구자 사이에서 구성된다는 것은 그것이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강민수 외, 2007). 생애사는 개인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삶을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와 문화 속에 노출되어 상호 교류를 통해 형성되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 개인의 삶, 즉 생애사를 통해 평생교육으로서의 독서라는 행위의 기능과 역할이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이루게 하며 나아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애사 연구가 적절하다.

Ⅲ. 연구방법론

1. 연구참여자

생애사 연구가 갖는 의의는 한 개인의 과거 사실과 경험을 기술하면서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전체로 살펴볼 수 있으며 개인이 갖는 독특한 삶의 의미가 사회와 맥락적인 상호관계를 갖는다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서를 통해 사서이면서 독서교육자가 된 한 개인의 생애사를 조명하면서 단지 주관적인 한 개인의 삶의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서라는 직업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을 통하여 독서교육자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해나간 연구참여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독서가 갖는 기능과 역할을 환기시키고, 독서교육자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부각시켜 성인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 독서 강국으로 전환하자는데 의미를 둘 수 있으며 독서가 유아, 어린이, 청소년만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다는 확장성과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이자 독서교육자로 활동하는 교육자이다. 사서교육원에서 전문사서로의 역량을 닦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사하여 사서로서의 길을 걸어갔다. 참여자는 사서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독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독서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습득코자 00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서교육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전문 독서교육자로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였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계속해서 00대학교 평생교육학 박사과정에 지원하여 독서교육을 평생교육과 접목하여 특히 노인들이 손자세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독서교육 모형과 프로그램개발에 관심을 갖고 2016년 6월에 박사논문을 완성하여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전문 독서교육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다루기 때문에 독서교육과 관련이 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서가 곧 교육자는 아니다. 사서란 사전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헌을 수집·정리·보관하고 대출과 필요정보를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독서교육자는 말 그대로 독서와 관련한 콘텐츠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자이자 교수자이다. 사서는 도서관에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작가와의 대화, 동화구연가를 통한 스토리텔링프로그램 등 독서교육자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연구참여자의 경우는 사서이지만 독서의 기능과 중요성을 깨달아 스스로 독서교육자가 되고자하여 독서교육에 대한 열의와 중요성을 실제로 체험하고 이를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같은 성인에게 독서교

육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조손간의 유대와 소통, 그리고 인성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독서는 곧 그 나라의 미래라 할 만큼 중요하지만 성인독서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들의 독서도 대입위주의 교육 체계 속에서 우선순위를 국영수와 같은 교과목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서가 갖는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자신의 삶에 실제 적용코자 한 연구참여자의 전환적 생애는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자료 수집

자료의 수집은 사서로서 독서교육자로 전환에 따른 연구참여자의 경력 경로와 경력 발달 과정을 생애사적으로 포착하고, 전문성 개념의 파악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내러티브 인터뷰(narrative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내러티브 인터뷰는 화자의 생애담 혹은 구술자료에 기초하여 연구참여자의 생애 여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Randles, 2012; Sokolovsky, 1996). 그 외에도 이메일, 전화통화, 면담 전에 연구참여자를 알 수 있는 문서(근무 이력 간 특이사항, 기고문, 학회발표 논문, 석사, 박사 학위취득 연구논문 등) 수집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내러티브 인터뷰를 지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하였고, 면담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면서 노트에 메모를 병행하였다. 내러티브 인터뷰는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회에 대략 1~2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가. 인터뷰 질문

1차 내러티브 인터뷰는 Adriansen(2012)의 타임라인 인터뷰 가이드라인(timeline interview guideline)에 기초하여 연대기적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생애사 연구에서의 시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서입문의 발단이 될 수 있는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시절의 구술 자료를 수집하였다(2016년 10월 22일 OO대학교 교내 카페에서 2시간 10분 녹음). 연구자는 내러티브 인터뷰 전사본을 분석하여 2차 및 3차 내러티브 인터뷰 질문목록을 추가적으로 생성하였다. 2차 내러티브 인터뷰에서는 사서로서 독서교육자가 된 주요한 변이와 전환점을 중심으로 질문목록을 구성하였고, 3차 내러티브 인터뷰에서는 향후 새로운 방향전환점인 독서교육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와 관련하여 독서교육자의 위상과 역할제고를 포커스로 하여 집중 질문하였다. 1차 내러티브 인터뷰 질문목록을 연대기적으로 출생 및 성장기, 제1 꿈 형성기, 제2 꿈 형성기로 구분하여 예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1차 내러티브 인터뷰 질문목록 예시

연대기	질문내용
출생과 성장기	- 귀하의 출생과 가족사항, 성장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 귀하의 교육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제1 꿈 형성기	- 귀하의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나요? - 사서를 직업으로 선택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 도서관 입사 후, 현재의 직무를 갖게 되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제2 꿈 형성기	- 독서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 사서로서 독서교육자가 되고자 한 동기나 계기에 대해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나. 인터뷰 가이드 코딩

1차 내러티브 인터뷰 자료를 기초로 <표 2>와 같이 1차 인터뷰가이드 코딩을 진행하였다.

<표 2> 1차 인터뷰가이드 코딩

개념	하위범주	범주
어릴 적 꿈이 없었음	어린 시절 꿈을 갖지 못해 아쉬웠던 시기	어린 시절의 꿈과 재능
꿈이 없어 아쉬웠음		
독서, 역사를 좋아함	독서를 통한 자신의 재능을 발견	
역사교육과를 가고 싶었으나 수학, 한문 등이 어려워져 진로를 바꿈		
가정교육과에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배움	교사가 되기 위해 가정교육과를 진학했으나 교생실습을 통해 진로를 바꿈	진로변경과 사서가 되기까지의 과정
이때 배운 지식이 독서교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됨		
언니를 통해 교사로서의 꿈을 포기		
오빠를 통해 공무원이 되기로 함	사서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자격증	
통일부에 다니는 언니의 조언으로 사서가 되겠다는 꿈을 가짐		
OOO대학교 사서교육원 입학		

<p>사서교사, 정사서 자격증 취득</p> <p>신문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합격</p> <p>공무원시험을 준비해둔 사전지식이 많이 도움이 됨</p>	<p>취득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에 합격</p>	
<p>공무원이자 사서로서의 꿈을 이룸</p> <p>중학교 담임선생님이 국어선생님이셨고 도서관업무도 맡으셔서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접함</p> <p>그 당시 사서는 따로 없었음</p> <p>사서에 대한 느낌은 조용하고 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사람이 하는 것</p>	<p>입사 전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느낌</p>	<p>도서관과 사서</p>
<p>국립중앙도서관에 입사하면서 그 생각이 달라짐</p> <p>매우 적극적이며 책을 정리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됨</p> <p>도서관 이용자 중에 사서에게 엉뚱한 요구나 사유로 힘들게 함</p> <p>사서 고생하는 것이 사서라는 고충을 갖고 있음</p>	<p>입사 후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느낌</p>	
<p>중학교 시절에는 세계고전 등 읽기프로그램이 있어서 반강제로 책을 읽기 시작</p> <p>독서습관이 형성되어 우리나라 단편을 읽기시작 함</p>	<p>책을 읽은 계기</p>	
<p>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2004년 설립할 때 설립에 참여하면서 그림책을 접하고 우수하다는 생각을 함</p> <p>4~5세의 큰 아이에게 매일 그림책을 1년 이상 읽어줌으로써 독서교육에 흥미를 갖게 됨</p> <p>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서 더욱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함</p>	<p>독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p>	<p>독서와 독서교육</p>
<p>전문 지식을 얻고자 000대학교 독서교육과에 입학하여 공부함으로써 독서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하게 됨</p>	<p>독서교육자가 된 계기</p>	<p>독서교육자</p>
<p>입학 후 사서들이 독서교육학 공부를 위해 입학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p>		
<p>독서교육 전공을 도서관에서 직접 적용하는 이점과 대학원에서 만나는 동기, 선배들의</p>	<p>독서교육자의 역할</p>	

인적네트워킹도 큰 장점을 인식함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사서로서 독서교육자가 할 몫이라고 생각함		
---	--	--

다. 시간흐름표

Adriansen(2012)의 타임라인 인터뷰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표 3>과 같이 1차 가이드를 통한 L사서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시간흐름표(타임라인)를 나타내었다.

<표 3> 1차 가이드를 통한 L사서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시간흐름표

시기	내용
1961~ 초등학교	부모님이 농사를 짓다 서울로 이주
중학교	담임선생님의 영향으로 처음 도서관이용 및 독서시작[독서습관 형성기]
고등학교	역사교사가 되고 싶었으나 가정교사로 꿈을 바꿈[교사로서의 꿈 형성기]
대학교	교생실습 후 교사에서 사서가 되기로 꿈을 바꿈 [교사에서 사서로서의 방향전환기]
대학교 졸업후 ~현재	- 사서교육원에서 사서자격증 취득 후 국립중앙도서관지원 - 000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서교육학 전공[사서로서 독서교육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동기형성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독서교육 등 활동 후 현재 국립중앙도서관[독서교육자로서의 역할 실행기] - 00대학교 일반대학원 평생교육학 박사학위 취득(2016) [박사학위 논문발표로서 보다 전문적인 독서교육자로 거듭나는 시기]

3. 자료 분석 및 해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 및 해석 과정 또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된 바 있는 생애사 연구와 심층면담의 과정과 절차를 참조하여 수행되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자료 분석 및 해석 과정은 심층면담 탐구의 절차 중 네 번째 단계인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경험에 대한 의미 구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및 해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사내용과 수집된 연구 결과물들을 전반적으로 훑어 나가면서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 연구 문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둘째, 전사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연구 문제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 결과물과 전사내용을 2~3차례씩 읽어가면서 참여자

의 면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연구결과물과 전사내용을 여러번 읽어가면서 분류한 코드에 해당하는 전사내용을 배치하고, 도출된 코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및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Mandelbaum(1973)이 제시한 생애사 분석단위(차원, 전환점, 적응)에 따른 생애사 연구방법과 Lieblich와 동료들(1998)의 주제 분석 방법에 따라 코딩과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Mandelbaum(1973)이 제안한 차원(dimensions)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 전환점(turnings)은 “경험, 사건 등 의식변화”, 그리고 적응(adaptation)은 “발전, 대처 전략”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는 생애사 연구가 서술적 연구에서 분석적인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몇 가지 차원 혹은 측면으로 나누어 볼 것, 둘째, 삶의 주요 전환점 및 이들 전환점 전후의 생활 조건들을 살펴볼 것, 셋째, 개인이 고유한 적응 양식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한경혜, 2005). 따라서 사서가 되기까지 가정과 중학교 도서관, OO사범대학교, 사서교육원과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경력 경로 선택 및 경력발달에서의 주요한 차원이며, 전문 독서교육자로서의 주요한 전환점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2004년 설립할 때 설립에 참여하면서 그림책을 접하고 우수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연구참여자의 큰 아이에게 4~5세경 매일 그림책을 1년 이상 읽어줌으로써 독서교육에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서 더욱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며, 삶에서의 주요한 적응은 독서교육자가 되기 위해 000대학교 독서교육학 석사, 00대학교 평생교육학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으면서 특정세대간의 독서교육 모형개발, 향후 이 모형에 따른 독서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삶의 방식이었다.

세 차례의 순환적 코딩과 범주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생성된 세 가지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사서라는 꿈을 이루기까지의 삶-〈‘갈매기의 꿈’-조나단 리빙스톤의 삶〉, ② 사서로서의 독서교육자로의 전환의 삶-〈‘꽃들에게 희망을’-노랑 애벌레의 삶〉, ③ 전문 독서교육자의 현재와 미래의 삶-〈‘고맙습니다, 선생님’-폴커 선생님의 삶〉.

세 가지 주제는 연구문제와 연관성 갖도록 하였고, 특히 세 가지 주제 모두 그 특성을 잘 드러내는 책 속의 주인공의 삶과 견주어보았다.

4. 연구의 신뢰성

모든 현장 텍스트는 어쩔 수 없는 해석적 텍스트이며 이는 특정방식으로 반응한 연구참여

자들의 반응을 선택적으로 얻은 결과이다. ‘좋은 내러티브’가 되기 위해서는 설명적(explanatory)이어야 하고, 읽는 사람을 이야기로 초대할 수 있어야(invitational quality)하고, 이야기의 진실성, 적절성,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Clandinin & Connelly, 2000).

Creswell(2007)은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외적 표준’으로 연구참여자의 확인과 검토 과정을 거칠 것, 다른 동료 연구자로부터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지를 검토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내적 표준’으로 연구의 내용이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에게 납득이 되고, 연구자의 의미와 일치하는 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을 염두에 두고 연구자가 해석한 이야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사회적 맥락 안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최소화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가능한 심층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인터뷰 면담 이외에도 다양한 보조자료(이메일 기록, 사진, 관련 기록물, 해당 기관 홈페이지 데이터 등)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질적 연구를 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등 독서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와 지도교수님과 협의의를 거쳐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생애사 연구에 가담한 참여자는 자신의 삶이 세밀하게 묘사된 글을 읽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염려하게 되면서 심리적 상처를 받거나, 연구자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Sikes, 2012). 따라서 윤리적 고려는 연구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연구자가 항상 고민하고 고려한 부분으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참여자에게 설명문을 제공하여 연구의 목적, 절차, 위험요소, 녹음된 자료의 기밀유지, 연구참여자의 비밀보장에 관해 설명한 후 연구참여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연구자가 정리한 생애이야기를 연구참여자와 공유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사서라는 꿈을 이루기까지의 삶-〈갈매기의 꿈-조나단 리빙스톤의 삶〉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갖고 있다. 작가 Richard Bach의 『갈매기의 꿈』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이 작품은 꿈을 찾아 노력하는 한 마리 갈매기를 통해 인간 삶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그린 감동적인 소설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자신의 꿈에 도전하는 갈매기 조나단의 모습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자기완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작가는 삶의 진리를 일깨우며, 우리 인간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멀리 앞날을 내다 보며 저마다 마음속에 자신만의 꿈과 이상을 간직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갈매기 사회에서의 주인공 조나단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과 강요, 고정된 관념을 이겨내야 하기도 하고, 또한 비행술을 익히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견디어내야만 한다. 조나단이 갖는 꿈을 이루기는 쉽지 않았지만 결국 꿈을 이루고 나서는 또 다른 꿈을 향해 날아가는 조나단의 모습이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이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인 L사서가 사서라는 꿈을 이루기까지의 삶과 연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어린 시절, 명확한 꿈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한 방향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주위의 형제, 자매나 가까운 지인들의 꿈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 능력, 역량을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시기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주인인 너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외치면서 자아정체감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나는 어떤 존재로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으로 바뀌면서 자신이 갖는 능력, 성취, 여건, 가치관, 인생관, 이념에 연관되어 꿈과 현실을 놓고 심각한 사색에 빠져든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6). 이러한 사색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독서활동이다.

솔직히 어릴 적엔 꿈이 없었습니다. (중략) 중학교에 입학 후 학교에 도서관이 설립되었고, 담임선생님이 국어교사였기 때문에 도서관을 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시절, 세계고전명작, 우리나라 중단편 소설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명작소설을 읽어야지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저에게는 ‘배따라기’, ‘운수좋은 날’, ‘상록수’ 와 같은 우리나라의 근대 단편소설이나 데미안, 테스 등과 같은 세계명작소설을 읽게 되었고, 나름 독서습관이 형성된 시기도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부터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점차 성장하면서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서관 사서가 된 것도 이러한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차 내러티브 인터뷰 전사본, 2016.10.22)

L사서는 자신의 재능이나 역량을 독서를 통해 파악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꿈을 형성해간다. 이것은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박아청(1995)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주체성, 자기수용성(self-acceptance),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을 들고 있다. 갈매기 조나단의 삶은 곧 자아정체감을 형성과 큰 관련을 갖는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주체성과 연관되며 조나단은 자신이 하늘을 나는 새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수용성을 통해 결국 더 높이, 더 빨리 날려는 비행술 연마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과 결국 성공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다른 갈매기와의 친밀성과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구참여자인 L사서도 독서활동을 통해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사서가 되고자 하는 꿈과 이를 위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역사 분야는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수학 분야는 흥미를 갖지 못했다는 점, 교생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 보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사서가 자신에게는 적합하다는 것 등의 자기수용성이 형성되어 감으로써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이 성장하게 되고 특히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과의 친밀성을 통해 사서의 꿈을 차근차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모습이 다음의 구술에서도 잘 나타난다.

저는 그저 공무원이 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큰소리 한번 못치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 경제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마침 오빠가 7급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였기에 그 책으로 저도 공무원시험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통일부 자료실에 근무하는 사서를 알게 되었고, 그 분을 통해 사서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某)대학 사서교육원에 입학하여 사서교사와 정사서1급을 취득하였고, 때마침 신문에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 공고가 나서 이를 보고 응시하게 되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사서가 되었습니다(1차 내러티브 인터뷰 전사본, 2016.10.22).

L사서는 경제권을 갖지 못해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존재감도 없으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 경제권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남성의 여성 차별이라는 문제의 시각보다는 경제권 즉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돈을

별지 못함으로써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여성이지만 자신의 역량을 키워 원하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경제권을 갖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오빠를 보면서 자신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주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오빠가 사용하던 수험서를 활용하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경제관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성도 L사서에겐 큰 강점이라 할 수 있다. 가족 간의 유대감도 문제가 없었으며, 학교 담임선생님, 통일부에 근무하는 사서와의 친밀감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나 방법을 모색하면서 그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주저 없이 도전하는 점에서 갈매기 조나단의 삶과 L사서의 삶은 매우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조나단이 자신의 꿈을 이룬 후, 또 다른 자신의 꿈을 향해 그 동안 비행술을 함께 연마했던 갈매기들과 이별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간다. 사서라는 1차적 꿈에서 다시 독서교육자인 전환적 꿈과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서 많이 닮았다.

2. 사서로서의 독서교육자로의 전환의 삶-〈꽃들에게 희망을-노랑 애벌레의 삶〉

작가 Trina Paulus의 『꽃들에게 희망을』은 짓밟거나 짓밟히는 살벌한 현실을 벗어나 자신의 참 자아를 발견하는 길을 알려 주는 나비의 이야기, 아니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참 자아를 발견하는 길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게 해 주는 힘은 희망과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예스24 서평 인용).

특히 등장인물인 노랑 애벌레는 연구참여자의 전환적 삶을 잘 대변해준다. 애벌레 기둥을 올라가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다가 주인공 호랑 애벌레를 만난다. 잠시 사랑에 빠지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서로의 길로 가게 된다. 호랑 애벌레는 애벌레 기둥에 대한 미련 때문에 다시 애벌레 기둥을 기어오른다. 애벌레 기둥의 가장 위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허상을 좇는 애벌레들은 그저 멋지게 올라가는 기둥을 바라보며 저 위에는 내가 원하는 꿈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만이 존재한다. 반면 노랑 애벌레는 참된 자아를 찾고 자신이 이루어야 할 꿈을 찾기 위해 나선다. 자신도 걸만 번지르르한 애벌레 기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곳에서 내려온다. 노랑 애벌레는 멘토인 늙은 애벌레를 만나 조언을 듣게 되는데 자신은 나비가 될 것이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꿈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마치 죽은 듯 갇혀 지내야 하는 어려운 번데기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내 실천에 나선다. 마침내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고 꽃들에게는 희망이 된다.

L사서를 노랑 애벌레의 삶과 견주는 이유는 애벌레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고 더욱이 2차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유사하다.

독서교육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유아였던 큰 애에게 그림책을 매일 같이 읽어주다 보니까 그림책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마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립이 추진 중이어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지원을 하였고 설립을 준비하는 직제에 독서교육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인재인 어린이, 청소년을 직접 독서 지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특히 사서가 아닌 교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독서교육학 석사과정을 진학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독서교육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1차 내러티브 인터뷰 전사본, 2016.10.22).

L사서는 사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자신의 큰 아이에게 그림책 읽어주기라는 독서교육을 통해 독서교육의 중요성과 독서교육자가 되어야겠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된다. 사서는 독서교육자와는 달리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고 대출하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다. 물론 도서관에서 독서운동을 주도하고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도 사서의 몫이지만 실제로 사서가 가르치거나 지도할 수는 없다. 독서교육자만이 갖는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병원에서 행정 사무일을 하는 사람이 의사가 맡은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L사서는 사서로서의 역할에서만 만족하지 못하고 독서교육의 주도적인 역할을 스스로 하고 싶어 한다. 자신이 1차적인 꿈을 이룬 것도 청소년 시절 독서활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인데 독서교육자가 되고자 하는 2차적 꿈을 갖게 된 것도 역시 자신의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독서교육에서 시작된 것이다.

L사서의 삶을 노랑 애벌레의 삶과 견주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나비가 되어 꽃들에게 희망이 되듯 자신의 꿈을 이루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게 한다는 점이다. 즉 사서로서의 삶 뿐만 아니라 독서교육자로서의 삶을 통해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독서교육을 통해 창의성, 인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이들 역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되지 못하고 그저 애벌레로써의 삶을 살았다면 꽃들이 나비를 통해 수정하여 자손을 퍼뜨리는 일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서교육자로서의 삶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심지어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쳐 스스로 꿈을 찾고, 다양한 역량을 계발하여 자신만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연구참여자의 삶은 단지 자신이 어릴 적 막연히 가졌던 교육자로서의 꿈을 마침내 이루어낸 것뿐만 아니라 성인, 특히 노인을 대상

으로 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손자녀 세대에 창의, 인성 등 독서교육이 주는 좋은 교육적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비가 된 노랑 애벌레가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도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꽃들에게 희망을』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노랑 애벌레 :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늪은 애벌레 :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노랑 애벌레 :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늪은 애벌레 :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 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 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과는 다르단다.

늪은 애벌레의 말처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간절히 원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이 살아온 모습에서 과감히 전환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은 L사서의 삶과 매우 닮아 있다.

3. 사서이자 독서교육자로서의 현재와 미래의 삶<고맙습니다, 선생님-폴커 선생님의 삶>

작가의 자전적인 그림책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Patricia Polacco가 개인적으로 선생님에게 바치는 감사의 노래이자,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학생들의 삶을 변하게 하는 폴커 선생님 같은 모든 선생님들에게 바치는 찬사이다. 책을 너무나 좋아하는 분위기에서 자란 트리샤에게 글을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폴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이 어린 소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엄청난 힘이 된다. 트리샤가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따뜻한 사랑과 정을 느낄 수 있다. [예스24 서평인용]

L사서의 삶을 폴커 선생님의 삶과 비교하고 유사점을 찾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이유는 폴커 선생님의 삶은 한 학습장애를 가진 난독증 소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선생님의 본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신이 가르치는 콘텐츠 즉 학습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르칠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신

의 지식으로 소화시켜 학습자들에게 전해야 하며, 보다 나은 교수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최신의 지식이나 정보에도 독서를 통해 습득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인 학생들에게도 관심과 사정을 이해하고 한명 한명에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폴커 선생님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매우 충실하였으며, 더욱이 학습자 중 하나였던 트리샤에게 관심을 기울여 난독증을 앓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녀가 다른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것을 차단해주어 학교에서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며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심지어 난독증을 치료하기 위해 독서전문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고 치료를 위해 노력한 폴커 선생님의 모습에서 연구참여자인 L사서의 삶과 닮은 점이 많다. 다음의 구술은 이러한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사서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양한 인터넷 검색 시대에서 사서가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역할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쫓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서로서의 역할이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향후 디지털 관련 다양한 정보매체의 정보 획득과 인쇄매체 만이 아닌 온라인 납본과 관련한 정리방법, 보관방법 연구와 같이 사서도 디지털시대 환경에 맞추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정보의 제공자 뿐만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역할, 정보를 가공해서 새롭게 이용자들에게 단순한 검색이 아닌 원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잘 찾을 수 있게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차 내러티브 인터뷰 전사본, 2016.11.5 및 3차 내러티브 인터뷰 전사본, 2016.11.26).

구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L사서는 사서가 갖는 역할에 충실하였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다가올 문제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에서, 또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진정한 프로정신을 보여주는 점에서 폴커 선생님과 많이 닮았다.

L사서의 삶을 폴커 선생님의 삶과 비교하고 유사점을 찾은 이유 중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폴커 선생님이로 인해 난독증을 앓던 트리샤는 결국 난독증을 이겨내고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책을 읽는다는 것이 이처럼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 트리샤는 성인이 되어 어린이를 위한 동화작가가 된다.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이야기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Patricia Polacco가 어린 시절 자신이 겪은 내용을 자전적으로 풀어낸 이야기로서 난독증을 이겨낸 소녀가 바로 자신 Patricia이다. 폴커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이 한 소녀의 인생을 바꾸는 역할을 한 것이다. 만일 트리샤가 폴커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만났다 하더라도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하는 선생님이었다면 트리샤는 작가의 꿈은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듯 교육자의 역할은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존재이다. 교육자는 돈이나 명예만을 목적으로 접

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으며 피교육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서교육자도 피교육자들에게 좋은 독서습관과 종합적인 독서교육이 바르게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교수자이며 또한 독자가 책의 내용을 분석, 비판, 종합, 추론하는 사고 과정을 통하여 지식이나 교양, 흥미, 체험 등 자기계발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도 이러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새로 온 담임선생님으로 인해 불법을 자행하던 엄석대는 학교를 자퇴하게 되고,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해 성인이 되어 범죄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 만일 선생님이 잘못을 저지른 석대를 트리샤처럼 사랑과 관심을 갖고 대했다면 석대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듯 교육자의 역할은 중요하고 학습자나 교육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이다. L사서도 이러한 점을 다음의 구술과 같이 잘 인지하고 있다.

독서교육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책, 독서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전통 인쇄매체나 온라인, 디지털 매체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독서교육은 유아 때부터 지금은 어린이보다는 노인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청장년세대 뿐만 아니라 노인세대에 대한 독서교육을, 교육이라고 해서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노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독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앞으로 그것에 대해 많은 고민과 사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교육자의 역할이 저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평생 동안 해야 할 것이 독서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독서교육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젊었을 때는 이쪽에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 관심이나 열정이 없었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독서교육이 필요하고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활동하면서 계속 열심히 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2차 내러티브 인터뷰 전사본, 2016.11.5 및 3차 내러티브 인터뷰 전사본, 2016.11.26).

독서교육은 정선된 독서 자료의 의도적 활용으로 피교육자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유발시키고 독서습관과 독서방법을 익히고 독서력을 신장시키는 것과 함께 정서순화를 통한 인격 형성, 가치관 정립, 인간성 회복에 도움을 준다. 독서교육자는 독서교육의 목표설정과 계획의 수립은 신중하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이때 피교육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맞는 독서 자료의 제공과 더불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설정과 이를 기반으로 독서교육을 수행할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이 바로 독서교육자가 할 일이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독서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사서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고 할 때 필요한 책이나 콘텐츠를 트레이닝북이라고 해서 세워놓고 읽어주는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서들이 만족해했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손자녀와 조부모세대가 서로 만나서 책을 읽고 옛이야기를 들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2차 내러티브 인터뷰 전사본, 2016.11.5 및 3차 내러티브 인터뷰 전사본, 2016.11.26).

연구참여자도 풀커 선생님과 같이 피교육자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전문 교육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독서교육학 석사과정, 평생교육학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독서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웠고, 사서로서 만의 역량뿐만 아니라 독서교육자로서 향후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세대 간 간극을 독서교육을 통해 메우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량개발을 통해 손자세대에 독서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간 불소통과 잘못된 인성문제 등을 독서교육을 통해 해결코자하고 하는데 향후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성인 독서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인세대의 독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다음의 구술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독서교육자의 역할은 확대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독서교육자의 인식 전환과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고, 특히 유아나 어린이에 대한 독서교육도 중요하지만 고령화시대 노인들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끼리도 소통하고 어린이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며 특히,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독서교육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서이자 독서교육자로서의 삶은 한마디로 가장 저에게 의미가 있었고, 저에게 남은 삶에서도 중심축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그러한 계기가 저에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습관인 독서활동이 제 삶의 전환점이 된 주요 계기라 생각합니다. 향후 제 삶이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제가 그 방법이나 의미에 대해서 특히 노인분들에게 많이 전파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2차 내러티브 인터뷰 전사본, 2016.11.5 및 3차 내러티브 인터뷰 전사본, 2016.11.26).

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를 통해 평생교육으로서의 독서활동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찾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즉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꿈을 찾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전환학습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사서의 독서교육 자로의 전환이 갖는 생애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독서활동이 한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형성케 하고 이를 통해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이다. 연구참여자가 어린 시절 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였지만 독서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찾게 되고 이를 통해 사서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 ‘책 속에 답이 있다’는 격언처럼 독서를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심지어 자아정체감 형성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어린 시절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둘째, 전환을 통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다. 생애사 연구는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듯이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몸담고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써의 삶을 살아간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이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그러한 삶에서 중요한 동기부여는 바로 전환이라는 계기를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보다 성숙해지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에벌레가 앞에서 깨어난 것도 하나의 전환이며, 다시 에벌레에서 번데기의 과정을 거치는 것 역시 전환이고, 결국 이를 통해 나비와 같은 성충으로 성장해가는 것이다. 이렇듯 삶에 있어 전환은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삶을 확장시켜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사서에서 다시 독서교육자로의 전환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셋째,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독서를 통해 학습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간다.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접근하기 쉬운 교육이자 활동이다. 특히 다양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의 교육인 동시에 창의, 인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활동이라 할 것이다. 연구참여자가 역시 이러한 독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전문 독서교육자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이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독서교육을 접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가 스스로도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공부와 학습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도 평생교육이 갖는 의미라 할 것이다.

넷째, 독서가 갖는 기능과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한 나라의

독서율은 국가경쟁력과도 연결된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전 국민의 독서율 제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수치상의 양적인 통계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양서를 선정하여 독서활동을 통해 지적 즐거움을 얻는 동시에 독서를 통한 질적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연구참여자의 생애사를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각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왜 독서가 필요하고 독서교육자가 되려고 했는가라는 관점에서 독서진흥에 힘을 보태고자 한 것이다. 사서는 독자에게 책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면, 독서교육자는 책을 매개로 하여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나 콘텐츠를 습득하도록 돕는 역할뿐만 아니라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와 같은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며, 배경지식, 메타인지, 독해전략, 질문전략 등 다양한 학습전략을 갖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 창의성, 인성,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등 많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듯 독서가 갖는 유익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독서교육자가 해야 할 몫이다. 이런 점에서 사서로서 전문 독서교육자로의 전환은 매우 의미 있는 점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인 독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독서의 질과 양은 곧 자기 발전의 정도를 가늠해 주는 척도이며, 타인과의 관계와 사회성 함양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독서는 그 대상이 성장기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들에게도 독서교육은 필요하다. 단지 책을 읽는 행위는 독서이지만 독서를 활용한 교육은 성인들에게 보다 큰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고, 제2, 제3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결방법을 찾게 해주는 것 역시 독서인 것이다. 해마다 성인 독서율이 감소하는 안타까운 현실상황에서 평생교육으로서의 독서활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독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룬 평생교육 사례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갈매기 조나단의 삶과 같이 꿈을 찾고, 노랑 애벌레처럼 간절히 꿈을 원하고 새롭게 전환하는 삶을 통해 자신만이 아닌 남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나아가 풀커 선생님과 같이 남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수, 문용린 (2007). 생애사 연구의 교육심리학적 고찰. **인간발달연구**, 14(1), 1-19.
- 강인서 (2017). 독서교육이 초등학생의 인성함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김병환 (2011). 48분 기적의 독서법. 미다스북스
- 김병찬, 윤정(2015). ‘창의적으로 수업하는 교사’에 대한 생애사적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 김수연 (2016). 독서토의 수업에서 질문 생성 전략이 아동의 읽기 동기와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영천, 이동성 (2011). 자문화 기술지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한국열린교육학회 학술저널**, 1-7.
- 김영천, 한광웅 (2012). 질적연구방법으로 생애사 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연구**, 18(3), 5-43.
- 김은옥 (2013). 독서지도사 양성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정미 (2012). 독서치료적 접근에 의한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 김주현 (2015). 기업교육 강사의 자서전적 생애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형숙, 문지원 (2012). 미술 창의성 연구를 위한 생애사 방법론 고찰. **조형교육**, 44, 77.
- 남미영 (2004).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독서기술. 서울: 아울북.
- 리처드 바크 (2015). 갈매기의 꿈. 서울: 현문미디어.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년 국민독서 실태조사’ 2015. 12. 보고서.
- 박경실 외 9인 (2010).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 박성희 (2003). 평생교육으로서의 연구방법론: 생애사 분석법, **한국성인교육학회 학술저널**, 6(1), 1-27.
- 박아청 (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중앙적성.
- 박정애 (2015). 진로독서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배철우 (2007). **책벌레 공부벌레**.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배철우 (2014). **독서교육,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배철우 (2016). **인성교육, 독서토론을 만나다**. 서울: 정인.
- 배희철 (2013). **비고츠키와 인지발달의 비밀**. 서울: 살림터.
- 변우열 (2015). **독서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설윤희 (2013). 자서전적 글쓰기를 통한 한 보육교사의 생애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손정표 (1999). **신독서지도방법론**. 서울: 태일사.
- 신헌재 (1998). **아동문학교육론**. 서울: 범우사.
- 신헌재, 권혁준, 우동식, 이상구 (2002).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이정.
- 신현순 (2006). **인성함양을 위한 독서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 옥샘 (2008). **초등학생의 독서습관이 대인관계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윤택림 (2013).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경화 (2017). **미래 인재를 위한 혁신적 교수·학습방법은 어떠해야 할까: 대한민국미래 교육보고서**. 서울: 광문각.
- 이동성 (2014). 한 초등학교 전문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예술기반 생애사 연구. **한국교육연구**, 31(4), 1-27.
- 이동성 (2015). **생애사연구**. 과주: 아카데미프레스.
- 이동성 (2015). 두 초등학교 남자 교원의 경력 경로 및 경력 발달에 대한 생애사 연구: 우연과 필연의 이중주. **교사교육연구**, 54(1), 102-119.
- 이보라 (2014). 논제 구축형 독서토론수업 모형 개발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460.
- 이삼형 (2011). 읽기(독서)에서의 교육 내용 위계화: 생애교육으로서의 독서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1, 29-52.
- 이선화 (2016). **조손 세대 간 교류증진을 위한 조부모 독서교육 모형 개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이선화, 이경화 (2015). 조손세대 간의 교류를 위한 조부모의 손자녀 독서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Global Creative Leader**, 5(2), 19-44.
- 이선화, 이경화 (2017). 조손 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조부모 독서교육 모형 개발. **평생교육·HRD연구**, 13(2), 57-81.
- 이성희 (2016). **독서교육의 내러티브 접근과 시사점 탐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이유미 (2008). **과정 중심의 독서 지도를 통한 창의성 신장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이해용 (2008). **학교도서관에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호신 (2012). **주제전문사서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장승익 (2004). **효율적인 독서 지도가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전창미 (2012). **독서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의 언어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 조가현 (2016). **창의성 신장을 위한 독서 지도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민정 (2010). **진로독서상담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직업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최인혁 (2015). **생애사 연구에 기반을 둔 개인 기록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통계청 (2016). 2014년 생활시간 조사. 2016. 12. 보고서.
- 트리나 폴러스 (1999). **꽃들에게 희망을**. 서울: 시공주니어.
- 패트리샤 플라코 (2009). **고맙습니다, 선생님**. 서울: 아이세움.
- 한경혜 (2005).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본 남성의 삶.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30.
- 한국독서학회 (2003). **21세기 사회와 독서지도**. 서울: 박이정.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6). **청소년 심리학**. 서울: 서원.
- 한정아 (2011). **독서와 영화를 활용한 진로지도프로그램이 고교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비교**.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한정희 (2013). **초등학교에서의 교과연계 독서가 학습부진아의 학업성취도와 학습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황매향 (2013). 독서를 활용한 진로교육의 가능성 탐색. **교육논총**, 33(2), 55-71.
- Adriansen, H. K. (2012). Timeline interviews: A tool for conducting life history research. *Qualitative Studies*, 3(1), 40-55.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 CA: Sage.
- Dave, R. (1976). *Foundation of lifelong education*. New York: Pergamon.
- Judith W. Ilwin (2012). **독서교육론**. 서울: 박이정
- Lengrand, P. (1975). *An introduction of lifelong education*. London: The UNESCO Press.
- Lieblich, A., Truval-Mashiach, R., & Zilber, T. (1998). *Narrative research: Read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 Mandelbaum, D. G. (1973).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t Anthropology*, 14, 177-207.
- Randles, C. (2012). Music teacher as Writer and Producer.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46(3), 36-52.
- Rosenblatt, L. M. (1978).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cy work*. Carbondale,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Sikes, P. (2010). The ethics of writing life history and narratives in educational research. In A. Bathmaker & P. Harnett (Eds.). *Exploring learning, identity and power through life history and narratives research* (pp. 11-24). New York: Routledge.

- Sokolovsky, M. (1996). Case study as a research method to study life histories of elderly people: Some ideas and a case study of a case study. *Journal of Aging Studies*, 10(4), 281-294.

